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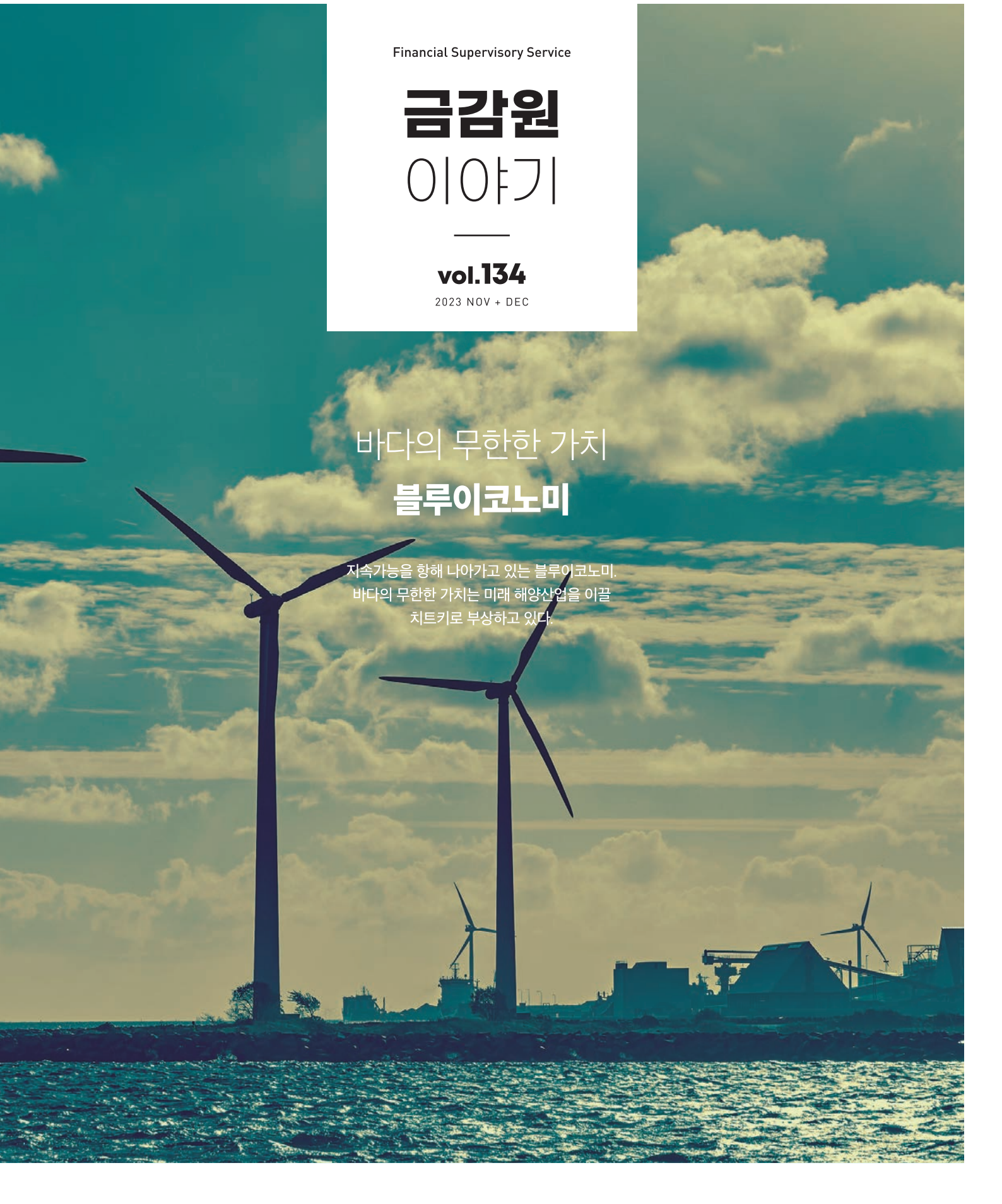
금감원 이야기

—
vol.134

2023 NOV + DEC

바다의 무한한 가치 블루이코노미

지속가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바다의 무한한 가치는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
치트키로 부상하고 있다.



CONTENTS

Special Theme

04

Survey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여는
블루이코노미

08

Review

블루이코노미
시대가 뜨고 있다

12

Inside

바다를 지킬 구원투수
블루이코노미

14

Interview

대한민국 블루이코노미의
미래를 전망하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통권 제134호)

발행인 겸 편집인 이복현

발행처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기획·편집디자인 ㈜이팝 02-514-7567

인쇄 디자인온 화신 02-2275-7719

본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진 FSSZINE



FSS Insight

18

FSS Focus

금융소비자 위해
원 팀을 이루다
제주지원

22

그림으로 보는 FSS

군인의,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금융정보

24

금융·경제트렌트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8

알쓸금잡

어르신의 노후자금을 지켜라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30

Q&A 특특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이 궁금해!

32

체크! 금융 생활 정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필수 상식

FSS Live

34

토박이의 여행 안내서

겨울왕국의 끝판왕
노르웨이

38

FSS 금융교육

어서 와, 금융교육은 처음이지?
직원참여 모교 및 자녀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40

FSS Talk Talk

FSS사이 기억하는
최고의 추억은?

44

FSS 명랑운동회

함께해서 행복해!

48

우리는 호적메이트

로맨틱한 생화 콘트리로 장식한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52

나를 가꾸는 시간

향기로 나를 알아가다,
향기로 나를 표현하다

56

FSS 뉴스

58

뻔하지 않은 퀴즈

Part 1

Special Theme

04

Survey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여는
블루이코노미

08

Review

블루이코노미
시대가 뜨고 있다

12

Inside

바다를 지킬 구원투수
블루이코노미

14

Interview

대한민국 블루이코노미의
미래를 전망하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Blue Economy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미래 해양산업의 중심이 될

블루이코노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여는 블루이코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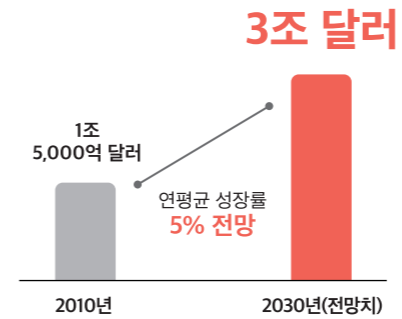
지구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 해양산업의 판도를 바꿀 블루이코노미의 국내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블루이코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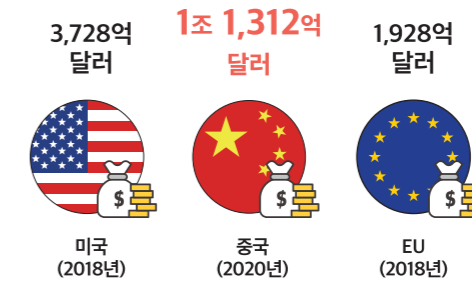
2030년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이코노미. 이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국 같은 주요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 탄소 저감, 디지털 해상 교통 물류, 스마트 양식, 첨단 해양 바이오 등 신기술을 개발하며 블루이코노미의 파도를 타고 미래 해양산업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 블루이코노미 시장



* 자료: OECD

주요국 해양경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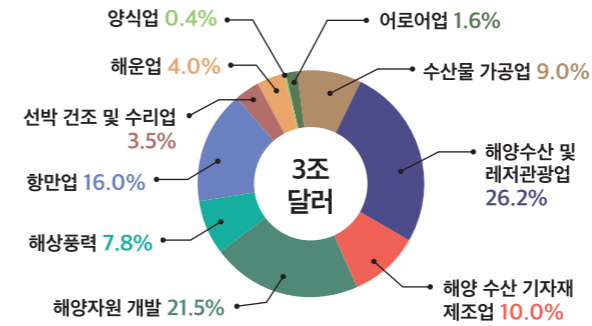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해양경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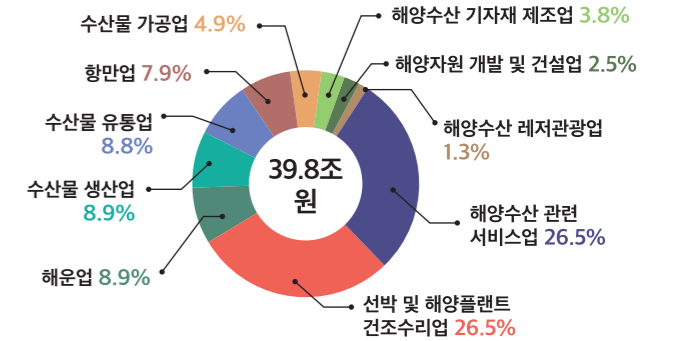


OECD 해양경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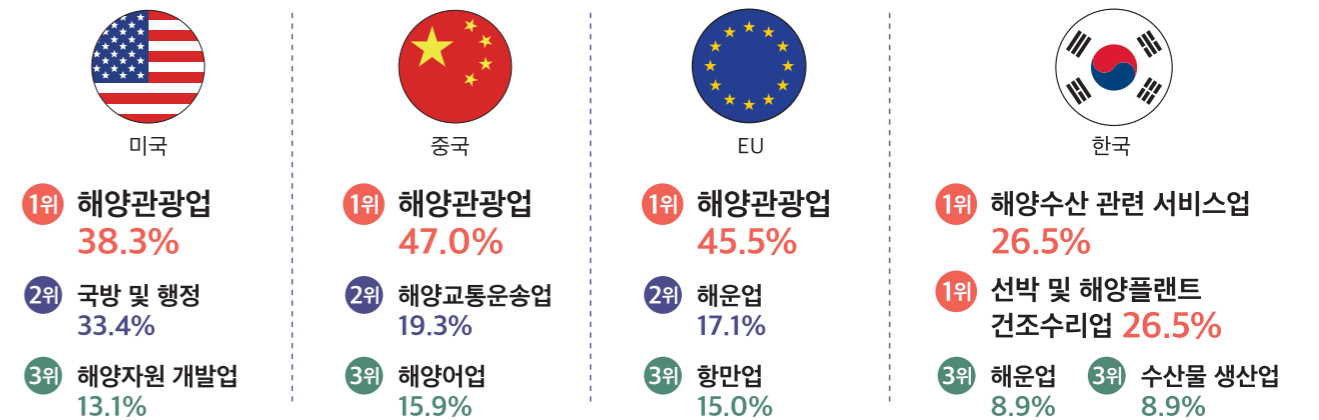
* 자료: OECD

우리나라 해양경제 분야별 비중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국 해양경제 분야별 비중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블루이코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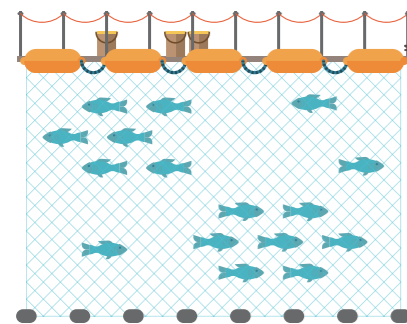
Blue Economy

블루이코노미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의 자원 잠재력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사회 체제를 의미한다. 국가 또는 기관에 따라 블루이코노미를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해양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있는 해양관광, 수산업, 양식업(어로 어업), 해운·항만업, 해양환경 보호, 해양자원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블루푸드

Blue Food

블루푸드는 친환경적 식량 공급 개념으로, 해양과 내수면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일컫는 용어다. 이는 수산물을 기존의 단순한 식량 공급원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면서 지구에 건강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건강에 좋은 식품 공급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블루푸드는 농·축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물의 사용이 적으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가능한 식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테크노미

Bluetechnomy

블루테크노미는 해양을 의미하는 블루(Blue)와 기술의 테크(Tech), 경제의 이코노미(Economy)를 합친 단어로, 친환경(Blue) 첨단 기술(Tech)로 국제 해양 청색경제(Economy)의 새로운 국면을 주도해 나간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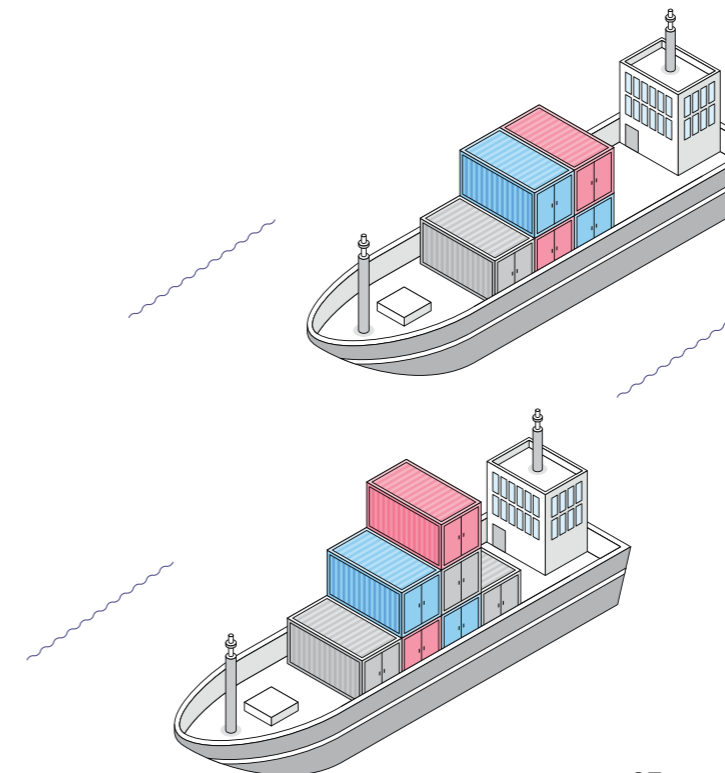
'제17회 세계해양포럼'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블루테크노미(Bluetechnomy)'라는 주제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기준으로 '물'을 제시하고, 물의 힘에 적응하는 첨단기술을 통해 회복력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양금융위크

Maritime Financial Week

해양금융위크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성장과 해양금융의 발전을 위해 국제행사가 열리는 주간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해양·금융 산업의 중심, 부산'을 주제로 금융감독원의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마리타임 컨퍼런스', 마린머니의 '한국선박금융포럼' 등으로 진행됐다.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에서는 '해양금융의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해양 금융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토론이 펼쳐졌다. '마리타임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세션과 시황세션으로 나눠 해운산업과 선박금융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선박금융포럼'에서는 선박 시장과 관련해 탈탄소화, 대체 연료 개발 등 국제적인 이슈와 국내외 옵션·선물 등 파생상품을 해양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동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안정적 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확충, 경영안정 등)
-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둔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완(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수산혁신 2030 계획

- 연근해어업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여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한 어촌 재생 본격화, 수산기업 창업·투자 육성,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포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

-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류정책 및 전략의 재구축, 글로벌 공급사슬 지원, 물류 네트워크 확충, 국가 균형 발전,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도입 확산에 대응한 물류산업 혁신 등
- 한반도 신경제 지도, 신남방·신북방 정책 실현을 위한 국제 물류체계 구축 전략 제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란 비전 제시
-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친환경 해양수산 실현 등 6개 중장기 전략 제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

- 그간 추진된 항만정책의 성과 및 평가, 국내외 해운항만 물류 여건 전망 및 물동량 예측
- 우리나라 중장기 항만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항만별 육성 방향, 기능 재배치 및 운영계획, 항만별 중장기 개발 규모 산정, 인프라 중장기 투자 규모 및 계획 포함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블루이코노미 시대가 뜨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블루이코노미란 해양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제·사회체제를 뜻한다. 이와 관련 국내외 블루이코노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정리한다.

글.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군터 파울리
<The Blue Economy>

블루이코노미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

블루이코노미의 개념은 일찍이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가 발간한 <The Blue Economy>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기업이 자연을 모방한 기술로 기존과 다른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뜻한다. 이 개념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에서 처음 언급된 바 있다. 이는 해양 기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자체는 유엔에서도 '해양생태계는 건강할 때 더 생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성장이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은행도 블루이코노미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존하면서 경제 성장, 삶의 향상, 일자리를 위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이라 정의한다. 바다는 이미 인류에게 넉넉한 나눔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0%가 해안지대에 살고 있고, 30억 명 이상이 생계를 위해 바다를 직간접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무역의 80%도 바다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5,850만 명이 직접 어획과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과 생계를 어획과 양식업에 의존하는 사람은 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7.5%에 이른다. FAO는 인간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17%가 어획이나 양식에서 나온다고 추산한다.

블루이코노미의 미래는 어업이나 해양관광 같은 전통 방식의 해양 활용에서 멈추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양이 경제 성장, 고용, 혁신의 잠재력을 품은 차세대 경제적 신개척지라고 기술한다.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블루카본 격리(탄소를 해양생태계에 저장해 대기로부터 장시간 격리하는 것), 해양에너지와 바이오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후변화와 맞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내외 블루이코노미 추진 전략 및 현황

선진 주요국들이 2030년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이코노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가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추진 중인 '블루이코노미 전략플랜 2021~2025(Blue Economy Strategic Plan 2021~2025)'는 해상운송, 해양탐사, 수산 경쟁력, 관광·휴양, 연안 탄력성 등 5개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수산해양부 중심으로 2019년 12월부터

김진오



김진오는 현재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으로 주로 에너지부문의 정책부문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부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과 기본계획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에도 다수 참여해 왔다.

‘블루이코노미전략(Blue Economy Strategy)’ 수립 작업에 착수했고, 2023년 3월 이해관계자 검토 단계를 마쳤다. 전통적인 해양 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특히 해양 에너지, 해상운송·항만 및 조선, 양식업, 어업, 해양관광, 해양 기술, 미래 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7월 ‘블루이코노미 로드맵’을 국가 경제 전략으로 발표했다. 이 밖에 영국의 ‘마리타임 2050(Maritime 2050)’, 중국의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그리고 일본의 ‘제3차 해양기본계획’ 등은 블루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지속가능성, 미래 산업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양 수산 경제와 산업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인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전남의 풍부한 블루자원과 산재해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남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활용되고 있다. 해양자원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적 혁신성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Blue Energy)’,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Blue Tour)’, ‘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Blue Bio)’, ‘미래형 운송 기기 산업 중심, 전남(Blue Transport)’, ‘은퇴 없는 스마트 블루시티(Blue City)’ 등 5대 전략 프로젝트가 제시되고 있다.



국내외 블루이코노미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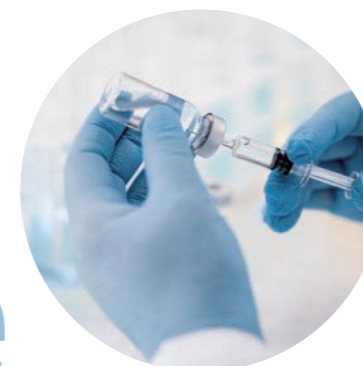
블루이코노미는 지구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지구 생명체의 99%를 품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매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엔은 블루이코노미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관련 정책들과 일련의 해양 경제 분야들로 구성된 경제·사회 체계’로 정의했다. OECD는 2010년 1조 5,000억 달러(약 1,958조 4,000억 원)인 블루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2030년 3조 달러(약 3,916조 8,000억 원)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열풍과 식량·전력·자원 위기는 블루이코노미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지금은 해양 관광이 주도하는 블루이코노미의 미래 성장 동력이 바다에서 진행되는 탈탄소 식량, 전력, 자원 개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고온 등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곡물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진 것은, 탄소 중립과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블루이코노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물고기 등 어류를 포획하지 않고 사육하는 수산양식은 바다를 통한 중요한 식량 생산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16년 184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세계 수산양식 산업 규모는 2030년 338조 3,000억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 양식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양식 산업 규모는 2016년 13조 원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18.7% 성장해 2030년에는 13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수산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1%에서 40.7%로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바다의 힘으로 전기 등을 생산하는 해양에너지는 블루이코노미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23 EU 블루이코노미 보고서에 따르면, EU 11개국의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17.5기가와트(GW)로 2022년 1년간 1.2GW가 증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해상풍력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 EU 지역은 전 세계 해상 풍력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EU는 2020년 11월 해상 풍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00GW로 끌어올려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는 해상 풍력발전 용량을 60GW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라남도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모토로 하는 블루이코노미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정책 방향이 맥락을 같이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드론, e-모빌리티, 바이오신약 개발 등 신산업을 포함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프로젝트별 비전의 체계화, ‘전남형 그린뉴딜’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블루이코노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어 기대가 주목된다. 아무쪼록 전남의 성공 사례를 참조해 블루이코노미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Blue Economy

바다를 지킬 구원투수 블루이코노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블루이코노미'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의 국내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출처 : 해양수산부, 완도군, 보성군, 강진군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완도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산업은 블루이코노미의 사례 중 하나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해양 관광, 바이오, 헬스케어를 융복합한 해양치유를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치유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국내 최초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바다와 갯벌, 해조류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 것이 그 시작이다. 해양치유는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 경관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이다. 이곳에서는 수중운동, 해수미스트, 명상풀, 해조류 거품테라피, 머드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을 비롯한 개인별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에도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완도해양치유센터로
이동합니다.



남해안 해양 관광의 중심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따뜻한 남해 바다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있다.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발판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는 회원 특량만에서 벌교 여자만까지 도시 전체를 아우른다.

우선 특량만을 중심으로 울포 해양레저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인피니티풀, 최장 깊이의 스쿠버다이빙, 실내 서핑장 등을 갖춘 종합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벌교 갯벌을 해양생태의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함께 여자만 국가정원 해양정원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벌교~장도 간 생태 탐방로와 벌교 갯벌 해양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갯벌 생태계 복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갯벌 복원과 염생식물 군락 조성, 탐조대 설치 등 친수 시설 마련에 나섰다. 보성군은 복원 사업을 통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 성장, 온실가스 저감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K-블루카본

강진군 습지는 해안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해 푸른빛의 바다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해안에는 블루카본(Blue Carbon)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이 조성된다. 블루카본은 갯벌, 갈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 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 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 시설 등을 조성했다.

'숨쉬는 해안'은 육상 보호시설, 습상 보호시설, 수중 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육상 보호시설은 굴망태를 활용해 자연 해안을 조성하고, 염생식물을 보호한다. 습상 보호시설은 굴과 돌망태 같은 친해양 소재를 사용해 건설 및 염생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제공한다. 수중 보호시설은 친해양 소재를 활용한 수중 방파제를 통해 해양 염생식물의 서식지를 확장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을 통해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숨쉬는 해안' 조성 개념도

대한민국 블루이코노미의 미래를 전망하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이끄는 것. 블루이코노미의 목표는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해운과 항만이 전체 교역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고 수산물, 해수 자원, 해양에너지 같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우리나라의 블루이코노미가 미래에 더욱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글. 최행좌 사진. 한상훈

Q. 원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바다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한 320여 명의 구성원이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 지원과 관련 학술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KMI의 연구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해운과 해상산업, 국제물류, 항만, 수산 생산·유통·소비와 수출입 등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어촌과 어민, 해양기후변화, 해양환경과 생태계, 해양재해, 독도와 섬 등 해양영토, 나아가 극지와 심해저 등 국제협력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스마트화, 국토균형발전, 규제혁신 등 연구와 국가 현안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블루이코노미에 주목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블루이코노미 전략은 무엇입니까?

A.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는 인류가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 할 내일의 해양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루이코노미 가치가 담긴 종합 계획과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차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을 통해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해양수산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이코노미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해양수산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Q. 선진국의 블루이코노미의 사례 중에서 소개해 주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선진국 중 적극적으로 블루이코노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Blue Economy Strategic Plan 2021~2025'는 블루이코노미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NOAA는 해양 및 해안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블루이코노미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NOAA의 블루이코노미 전략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블루이코노미 성장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고, 해양 관련 연구 및 데이터 수집을 강화해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협력과 블루이코노미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블루이코노미의 강점 및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 우리나라의 블루이코노미는 규모와 다양성, 기술력,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를 끼고 있는 반도 국가로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수산물, 해수 자원,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이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만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 담당하고,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건조기술 등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블루이코노미는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력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블루이코노미는 해양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해 친환경 기술로 생산·소비 체계를 혁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합니다. 해상풍력, 해양플랜트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돕고, 해안 지역 및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블루이코노미를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블루이코노미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블루이코노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의 블루이코노미가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A. 첫째, 해양기초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입니다. 2022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 과학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정도이며 미국(100%), 유럽(98.6%), 일본(85.8%)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바이오(76.1%), 해양관측 및 예보(75.5%), 해양방재(75.3%), 극지해양과학(74.3%) 등 해양과학 분야는 좀 더 뒤쳐져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의 빈도·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해양기초과학 및 거대사이언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양수산 전통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활성화입니다. 가령 수산업은 풍부한 영양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블루푸드’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분야에서 블루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등의 유망 분야는 관련 시설, 조직, 인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발전단계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Q. KMI에서 블루이코노미 발전과 관련해 하고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A. KMI는 블루이코노미 여건 분석과 전망을 위해 약 25개 세부 분야에 걸쳐 향후 10년을 전망한 ‘해양수산 전략리포트’를 3년째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는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을 개최해 블루이코노미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KMI가 주도해 세계어촌대회(ICFC)를 창설했고,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과 블루이코노미 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회의와 국제 세미나로 우리나라 블루이코노미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라는 측면에서 블루이코노미의 가능성은 국토의 최외곽 지역이자 바다를 향한 출발선인 연안 지역의 미래발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KMI는 연안 지자체와 함께 지역 중심의 연안경제권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저는 KMI 경영을 해양수산의 현장과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미래연구, 현장과 현안 해결형 실용연구, 그리고 국내외 정책고객 및 전문가와 협력연구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KMI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블루이코노미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art 2

FSS Insight

18

FSS Focus

금융소비자 위해 원 팀을 이룬다
제주지원

28

알쓸금잡

어르신의 노후자금을 지켜라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22

그림으로 보는 FSS

군인의,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금융정보

30

Q&A 토크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이 궁금해!

24

금융·경제트렌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체크! 금융 생활 정보

운전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필수 상식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 (미국의 전 농구선수)

군인의,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금융정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군인이라면 주목!
격오지 근무로 필요한 금융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군장병들. 군생활을 하면서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정보부터 군장병이 누릴 수 있는 금융혜택,
자산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군장병을 위한 금융포켓가이드북 제작·배포



금융감독원이 군장병의 금융지식 향상을 위해 <군장병을 위한 금융포켓가이드북>을 제작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배포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유익한 사이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파인(FINE)'은 금융상품 찾기, 금융꿀팁 찾기, 내 돈 관리, 금융회사 정보 등의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거래 계산기와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 1 네이버, 다음 등에서 '파인'을 검색
- 2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직접 접속
- 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가능

모바일 사용

모바일 앱을 통해 네이버, 구글 등에서 '파인'을 검색하면 '파인' 전용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대출사기 피해예방 4계명



- 1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할 것
- 2 문자 대출광고만 보고 대출하지 말 것
- 3 선입금을 요구하면 바로 거절할 것
- 4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각 대출신청을 중단할 것

※ 대출사기 발생 및 대출수수료 요구 시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3번)에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혹은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서도 연결 가능하며,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군인을 위한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월 적립한도 은행별 20만 원, 개인별 최대 40만 원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국가 예산으로 1% 이자지원 등
가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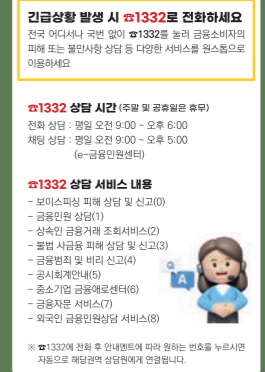
- 1 신병교육기관: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 진행,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
- 2 일반 부대: 국방인사 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신청 후 발급받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
- 3 모바일 가입: 2023년 7월 기준 KB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신한 6개 은행에서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가입 가능

타인 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 방법



- 1 타인 계좌에 잘못 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구
- 2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정보 시스템' (kmrs.kdic.or.kr)을 이용
- 3 착오송금 반환 정보 시스템에 접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를 하고, 수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자세한 사항은 <군장병을 위한 금융포켓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1332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채팅 상담 평일 09:00~17:00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경제는 가장 해외 의존적인 경제이다. 또한 촘촘한 글로벌 생산사슬로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현듯 발생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국제 원유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2050년까지 원유가격이 지금의 배럴당 8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원유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이란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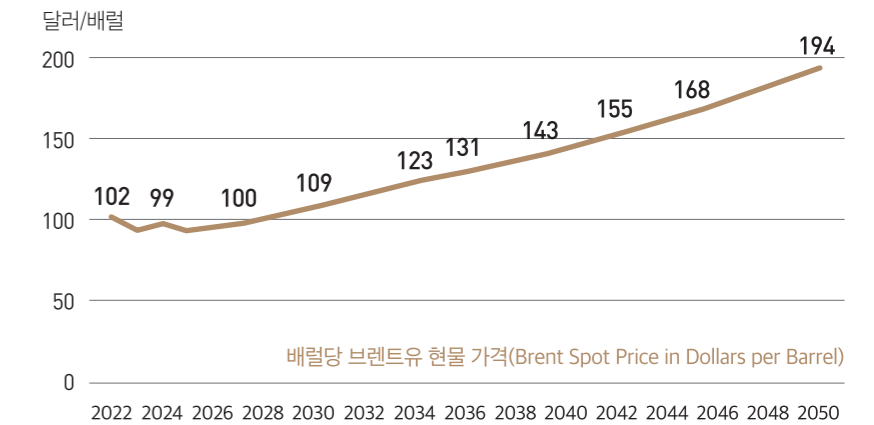
글.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를 통하여

불현듯 발생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 갈등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 더 나아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와 글로벌 생산사슬이 촘촘하게 구성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에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 원유가격 상승을 통하여 확산될 것이다. 전쟁이 발생한 가자지구는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하여 전 세계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제변수는 원유가격일 것이다. 원유가격은 글로벌 제조업의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원유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여 자동차에서 제약 산업까지 글로벌 경제의 화려한 모습은 원유 없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 원유가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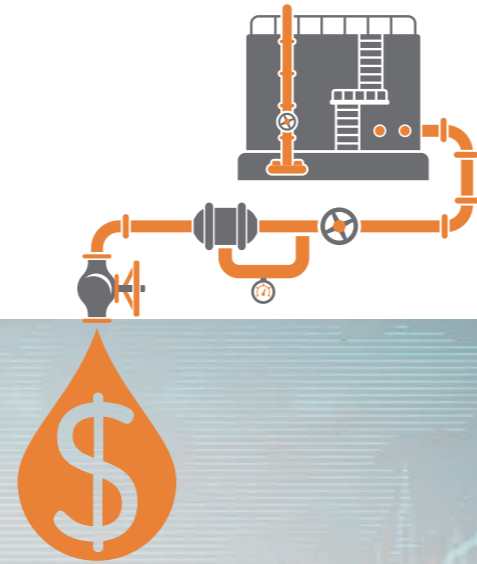
* 출처: 미국 에너지성 산하 에너지 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23년 11월

원유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굳이 비교한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곡물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켰다면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농업은 의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므로 유가 상승은 다시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격의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답답한 것이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과 원유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2050년까지 원유가격은 추가 상승

앞의 그래프를 보자. 미국 에너지성 산하 에너지 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2050년까지 예측한 글로벌 원유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배럴당 브렌트유 현물 가격(Brent Spot Price in Dollars per Barrel)이다. 세계 주요 기관들에서 원유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다. 미래 원유가격 예측에 따르면 원유가격은 2050년까지 2022년 대비 약 100% 증가하여 지금의 배럴당 80달러 수준인 원유가격이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원유가격의 예측에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이렇게 상승세에 있는 원유가격을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한 10월 초 이후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10% 정도 상승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내년 초에 발표될 2050년까지 원유가격 예측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미래의 원유가격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불안요인: 이란의 전쟁 개입

이러한 상황에 원유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의 전쟁 개입이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핵무기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그 보상으로 원유생산과 수출을 빠르게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이란이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게 되면 이란의 원유생산과 수출은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현재의 배럴당 8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더 확대되어 이란이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원유가격은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만약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다면 전 세계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 각국의 노력으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란의 군사행동 여부가 국제유가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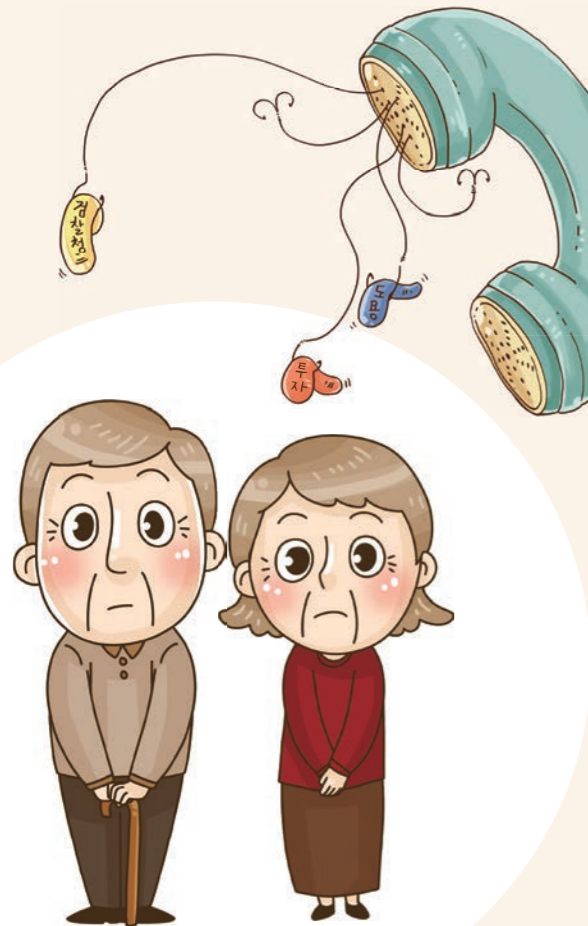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이제는 긍정적인 전망을 살펴보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안정화되는 경우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현재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수습될 경우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따라서 전쟁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외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르신의 노후자금을 지켜라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배당금, 모집수당에 혹했다가 어르신의 소중한 은퇴·노후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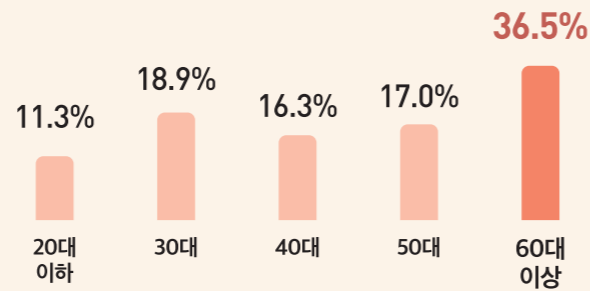
1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최근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법에 의한 허가 혹은 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민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6.5%로 가장 많았다. 또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6.7%가 60대 이상이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고령층이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악용한다. 주로 은퇴·귀농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고령층에 접근하고, 투자금을 내면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활용해 동영상 송출, 포스터 부착, 리플릿을 배포한다. 또 불법 금융사기 관련 피해 상담, 금융 애로 상담 등도 실시해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접수 현황

2

어르신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의 특징

'대면 투자설명회'를 통한 사기가 성행한다.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이 디지털기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보다 대면 설명회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등 생소한 사업을 전도유망하다고 홍보하며 현혹한다.

'조합사업'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빈번하다. 주로 협동·영농조합처럼 속이고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면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강조한다.

또 '모집수당',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어르신들은 지인이나 가족이 권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설명회 참석자나 기존 투자자에게 고액의 모집수당을 주며 지인, 가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다.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다.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주고 더 큰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투자자를 속이려고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다. '○○투자금융', '△△보증금융' 등 금융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속여 원금을 보장한다는 허위 보증서를 교부한다. 이에 더해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사례



3

불법 유사수신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1 가족,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한다면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공하는 단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 2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신기술 사업 등 어려운 사업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 3 '조합' 사업을 가장해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합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설립 신고를 했더라도 원금, 확정 배당금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4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받았다면 발급기관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파인' 등에서 조회하거나, 발급기관이 제도권 금융사인 것처럼 위조하는 사례도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불법 유사수신 피해예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이 궁금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요즘이다. 당연히 안전한 비대면 시스템은 더 중요해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책임지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 그간 잘 몰랐던 FDS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자.

글: 편집실



Q. 도대체 FDS가 무엇인가요?

A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 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오후 2시에 결제가 이뤄진 신용카드로 30분 뒤 서울 근교에서 결제가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결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0분 뒤에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 결제가 된다면 비정상적인 결제로 판단됩니다. 그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카드 소유자에게 이상거래가 있다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FDS입니다. 이처럼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FDS를 자체 구축·운영 중입니다.

Q.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탐지 시나리오 개선, 신규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 및 주요 7개 은행과 함께 2022년 12월부터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Q. FDS 운영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은행이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시작단계부터 수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거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 이 말인즉슨, 금융회사의 앱(App)에서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갱신은 물론, 금융서비스 로그인과 같은 절차에서부터 금융거래 지시·승인 및 서비스 로그아웃 절차까지를 포괄합니다.



FDS 탐지기법을 통해 은행 거래 데이터에서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응 절차를 수행합니다.

FDS 운영 프로세스에 따른 데이터 변화 과정



Q. FDS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 첫째, 국내 은행업권에서는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물'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이에 더해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물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별도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한 뒤 ARS, SMS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의심 거래 시나리오에 의해 FDS 탐지 시 화상통화, 생체인증과 같은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해 유관 피해를 예방합니다.

셋째, 금융회사는 악성 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한편 강화된 FDS가 적용되면서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되는 일부 정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속한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해제됩니다.

예시

이상거래탐지룰(Rule-Set)

시나리오 명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 보유 계좌에서 단시간 내 과거에 거래내역이 없던 계좌로 소액 다수 이체 탐지

피해 사례 신분증 등 개인정보유출 된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 계좌에 접근해 평소 이체하지 않던 계좌로 다회 이체

탐지를 및 대응 시나리오 의심거래 탐지
① 미성년자 또는 특정 나이 이상 고객 계좌에서 ② 단시간 내
③ 최초 입금 계좌로 ④ 특정 횟수 이상 이체 시 의심거래로 탐지

확인 및 대응

- ① FDS 탐지 이후, 본인 거래 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콜 등 추가인증 실시
- ② 추가인증 미실시의 경우, 거래차단(이용제한) 등록
- ③ 차단사실 및 차단 해지 요청 방법 통지(카카오톡 및 SMS)



운전자가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필수 상식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장해 주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다. 운전자 나이에 따라,
특약 조건에 따라, 보장 내역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리. 편집실



자동차보험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1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 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2 운전자한정특약 가입 시 운전자 경력인정 대상자 미등록**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3 경상환자 일부 치료비 직접 부담**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상대 운전자 사고접수 거부 시 상대방 보험사 치료비 직접 청구**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5 무면허 보험사고 발생 시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8억 원, 대물 7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Case

B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일부를 B 씨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B 씨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보험약관상 12~14급의 상해(염좌 또는 타박상)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 I (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상식] 사고부담금이란?

무면허·뺑소니, 음주·마약 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운전자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Part 3

FSS LIVE

34
토박이의 여행 안내서
겨울왕국의 끝판왕
노르웨이

48
우리는 호적메이트
로맨틱한 생화 콘트리로 장식한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38
FSS 금융교육
어서 와, 금융교육은 처음이지?
직원참여 모교 및 자녀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52
나를 가꾸는 시간
향기로 나를 알아가다,
향기로 나를 표현하다

40
FSS Talk Talk
FSS인이 기억하는
최고의 추억은?

56
FSS 뉴스

44
FSS 명랑운동회
함께해서
행복해!

58
뺑하지 않은 퀴즈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생텍쥐페리 Antoine de Saint-Exupéry (프랑스 작가)

겨울왕국의 끝판왕

노르웨이

Winter is Coming



●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온 거리가 유쾌한 축제 분위기로 장식된다.



겨울 하면 여지없이 생각나는 여행지, 노르웨이. 숨이 멎을 듯한 대자연을 품고 있는 노르웨이는 겨울이면 순백의 마법이 펼쳐진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설국의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겨울왕국'을 만날 수 있다.

글, 사진. 쿤(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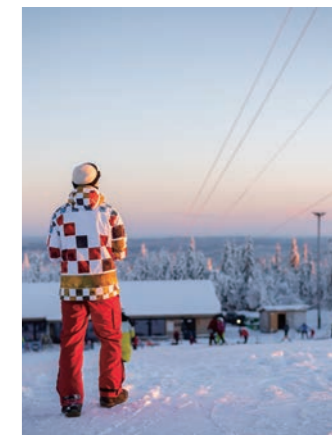
크리스마스의 수도, 오슬로

노르웨이에서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기대한다면 '크리스마스의 수도'로 불리는 오슬로가 답이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겨울 내내 동화 속 마을 같은 정겨운 풍경들이 고스란히 재현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온 거리가 유쾌한 축제 분위기로 장식된다. 메인인 중앙역 건너편에 있는 '칼 요한 거리'다. 거리 중앙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나무가 세워지고, 주변 건물을 온통 전구로 장식해 반짝거린다. 또 크리스마스 약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마켓 '윈터 원더랜드'도 열린다. 크고 작은 상점들에서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노천카페들도 밤늦게까지 불을 환하게 밝힌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와인을 끓이는 달콤한 향이 솔솔 풍겨온다. 따뜻한 와인 '글로그(glogg)'다. 따스한 와인을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고, 달콤한 향과 맛에 마음도 따뜻해진다.

도심에 자리한 거대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남녀노소 빙판 위를 달리거나, 겨울 바다에서 사우나를 즐기거나, 바다로 입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하게 마주할 수 있다. 오슬로에서는 터보건(Toboggan) 썰매를 체험해 보는 것도 좋다. 터보건 썰매는 바닥이 편평하고 길이가 긴 썰매로, 앞이 위로 구부러지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홀멘콜렌 스키 점프장 근처엔 오슬로에서 가장 유명한 썰매길 '코르케트레케렌(Korketrekkeren)'



이 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눈으로 뒤덮인 길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환상의 설경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터보건 썰매를 타고 약 2km를 질주할 수 있다. 바람을 가르며 짜릿한 쾌감이 나도 모르게 증폭될 것이다.



●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겨울 내내 동화 속 마을 같은 정겨운 풍경들이 고스란히 재현된다.



Tip

+ 뭉크박물관
노르웨이의 대표 화가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의 생애와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운영시간 일~화 10:00~18:00, 수~토 10:00~21:00
입장료 성인 약 19,000원 / 25세 미만 약 12,000원 / 0~17세 어린이 무료

Tip

+ 오슬로 바다 사우나
· 공용 사우나
운영시간 07:00~22:00
입장료(비회원) 성인 약 23,000원 / 어린이 약 9,000원
· 전용 사우나
운영시간 09:30~20:30
수용인원 6~25명
입장료(비회원) 약 17만~53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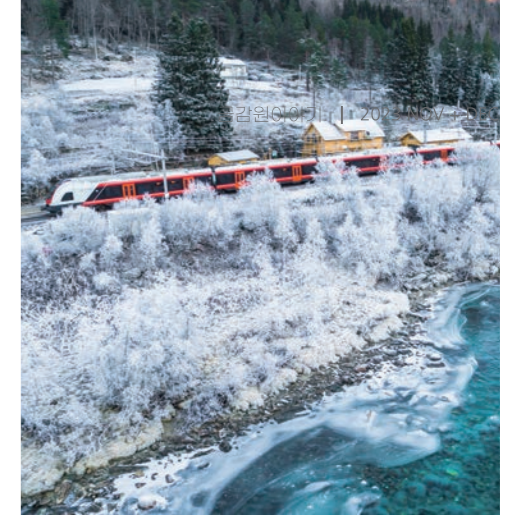


오슬로 바다 사우나 예약



역사가 깊은 베르겐 국립극장을 비롯해 해양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등 시내 곳곳에 때 묻지 않은 문화가 엿보인다.

눈부신 베르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뢰위엔산(Mount Fløyen)에 오르는 것이다. 플뢰위엔산은 해발 320m로 산악열차 '푸니쿨라'를 타면 바로 정상에 닿을 수 있다. 정상에서 마주하는 멋진 풍경은 일품이다. 대형 크루즈 선박이 오가는 항구와 빨간 지붕을 이고 있는 집,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주 서정적이다. 탁 트인 전망대의 시야는 그야말로 '파노라마 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듯하다. 여유가 된다면 전망대 뒤쪽의 아름드리 전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전나무 숲길도 걸어보자. 노르웨이의 요정 트롤이 어디선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찬란한 겨울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 **뾰족한 지붕을 얽은 색색의 아담한 집들이 마치 알록달록한 장난감처럼 서 있어 동화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Tip

+ 터보건 썰매
코르케트레케렌에서 터보건 썰매를 타고 눈위를 뽕뽕 달리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가격 성인 약 15,000원 / 어린이 약 9,000원

터보건 썰매 예약



어서 와, 금융교육은 처음이지? 직원참여 모교 및 자녀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김병진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수석조사역

고기영
금융교육국
조사역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듯이 경제·금융에 대해 일찍 배울수록 일생에 걸쳐 금융 웰빙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자녀 학교와 모교에서 금융교육으로 재능 기부를 펼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지난 11월 2일, 본원에서 ‘FSS 모교 및 자녀 학교 1일 금융교사 간담회’가 열렸고, 우수 교육사례와 향후 1일 금융교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진 수석조사역과 고기영 조사역이 자녀 학교와 모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했고, 이날 그들에게서 1일 강사를 체험하고 온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최행좌 사진, 한상훈

Q. 모교 및 자녀 학교 금융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김병진 수석조사역
저희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선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 금융교육으로 아이들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기영 조사역
저는 거제도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3학년이었을 때 학생부장이었던 선생님께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로

계십니다.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후배들에게 금융교육과 금융 관련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후배들이 금융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Q.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금융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병진 수석조사역
지난 5월 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는데요. 8개 반을 4개 반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했어요. ‘현명하게 돈 모으기’라는 주제로 돈이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고기영 조사역
지난 10월 27일, 거제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했어요.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특성상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제활동과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금융교육 간담회를 실시했다.



Q. 금융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김병진 수석조사역
금융교육국에서 준비해 주신 홍보물품 ‘그립톡’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가 그려진 스케치북, 노트, 연필 등을 사비로 준비해서 방문했어요. 수업 중간중간에 금융 관련 퀴즈를 맞히는지와 상관없이 손을 들고 답변하는 학생들에게 상품을 전달했는데요. 퀴즈를 내면 모든 학생이 손을 번쩍 들 정도로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고기영 조사역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에 있는 2분 내외의 짧은 드라마 형식의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 영상을 보여주며, 그와 관련된 내용 설명을 해주니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Q. 금융교육을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김병진 수석조사역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하는 것은 부모 관점에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고학년을 위한 금융교육도 하고 싶고, 2년 뒤에 둘째 아이가 3학년이 되면 깜짝 선물처럼 비밀로 하고 학교에 가서 금융교육을 하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기영 조사역
1사 1교 금융교육 담당자로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가 직접 현장에 나가 교육을 해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 기본이고, 현장 분위기나 학생들과의 소통, 학교 선생님들과 일정 협의 등 강사로서 챙길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교육 업무 담당자로서 중간에서 잘 조율해 많은 학생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SS인의 기억하는 최고의 추억은?

2023년과 작별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FSS인은 올해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까? 유쾌하고 재밌는 사연부터 감동이 밀려오는 사연까지
각자 마음속에 저장한 잊지 못할 추억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FSS인이 소장하고 있는 최고의 추억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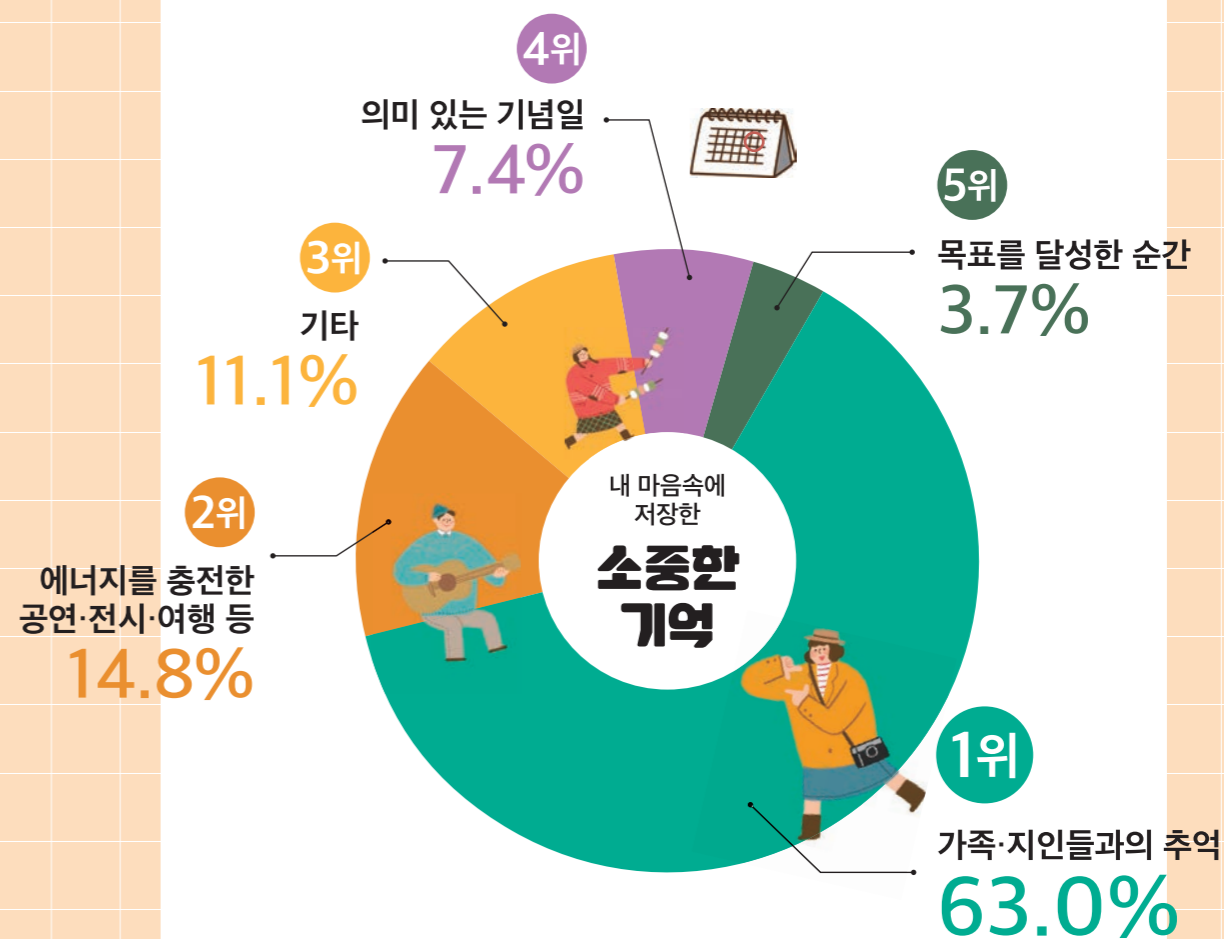


FSS인에게 소중한 기억

1위, 가족·지인들과의 추억

FSS인이 가장 많이 투표를 한 것은 '가족·지인들과의 추억'이었다. 저마다 기억하고 있는 추억은 다르지만 FSS인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함께한 소중한 가족과 고마운 동료, 지인이 있었다는 사실. 기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한 순간은 영영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족·지인들과의 추억'에 이어 2위는 '에너지를 충전한 공연·전시·여행 등'이었다. 평소에 보고 싶었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거나, 내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뒤를 이어 3위는 기타, 4위는 의미 있는 기념일, 5위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이 꼽혔다. 2023년을 돌아 보며 FSS인이 기억하는 올해의 추억을 소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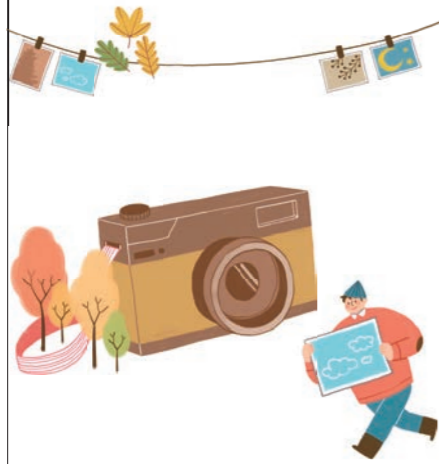


합격 통보를 받고 FSS로 첫 출발을 하던 그날!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게 첫 출근한 날, 신입연수를 간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구고선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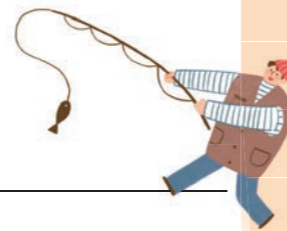


'진짜' 남자들의 낭만 넘치는 강원도 댕냥시 여행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낚고, 세월도 낚고 아주 기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낚시 여행에 함께할 새로운 멤버를 모집합니다. 신입 환영!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진 3인방

권순훈 자산운용감독국 조사역
이태석 자산운용감독국 조사역
정대규 조사1국 검사역



딸과의 첫 만남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난 날, 저는 딸바보 아빠가 되었지요.

김동일 기업공시국 조사역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푸바오

요새 핫한 인스타그램으로 떠오르는 푸바오를 직접 보러 갔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튜브로만 보던 판다가 눈앞에서 실재로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박다예 금융투자검사국 검사역

인생네컷 가족사진 찍기

8월 말 여름휴가지에서 2명쯤 들어갈 작은 부스에서 가족 모두 들어가 찍느라 힘들었으나, 예쁜 사진이 남았네요^^



송재희 금융민원총괄국 상담전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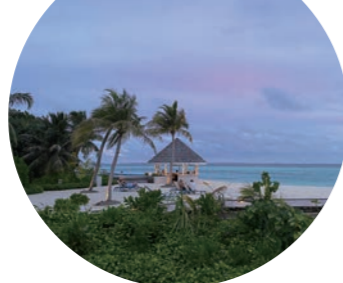
그래피티 화가 뱅크시의 '사랑은 쓰레기통 에라는 작품을 본 우리 딸은 사랑을 기여코 붙잡을 모양입니다.



아이와 함께 간 미술관

박재만 은행검사국 선임검사역

지상낙원 몰디브



몰디브로 갔던 신혼여행이 몰디브가 너무나 너무 좋아서 꼭 한 번 더 가려고요!

송신덕 은행감독국 조사역

태국에서 쿠킹클래스



가족과 함께하는 태국 여행에서 쿠킹클래스로 현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참 인상 깊은 추억입니다.

신다혜 인적자원개발실 선임조사역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복직 전에 단둥이 해외여행을 간 일, 혼밥도 안 하는 내가 여행을 딸과 간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죠. 아이와 함께 근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한 해외여행



신지현 상품심사판매분석국 주무역

안동 월영교의 밤



11월 가을 저녁 안동 월영교에서 지인들과 함께한 추억이 특별한 기억이 됐습니다~

윤상현 보험영업검사실 검사역

해우재에서 딸과 데이트

어린 막내딸과 올해 같이 간 여행지 중 해우재 (a.k.a 동백물관)를 특히 재미있어 했어요.



윤선준 금융민원총괄국 민원전문역



대게 좋아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짱이님 사랑해요~



이만영 상품심사판매분석국 조사역

김장하던 날



해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어머니의 노환으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날이 올해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희주 광주전남지원 민원전문역



조지아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가지 못했던 조지아를 올해 휴가로 다녀왔어요!

장원정 여신금융감독국 총무역

금융민원총괄국 원스톱서비스팀이 생명보험구역 6명이일본 대마도와 부산에 함께 간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한 여행

최황용 금융민원총괄국 상담전문역

로맨틱한 생화 콘트리로 장식한 우리만의 크리스마스

장شم
보험감독국
조사역

고민정
연금감독실
검사역

2023년은 고민정 검사역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 결혼과 입사라는 대업을 모두 치러낸 기적 같은 한 해였으니 말이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자신에게 또 남편 장شم 조사역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크리스마스 콘트리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진한 나무향이 매력적인 더글러스와 묵직한 삼나무의 조화, 여기에 반짝거리는 전구와 알록달록한 오너먼트, 양중맛은 솔방울 장식을 곁들이니 세상에서 하나뿐인 이 부부만의 멋진 작품이 완성됐다.

글. 이용규 사진. 한상훈

고민정 연금감독실 검사역 & 장شم 보험감독국 조사역 부부

겨울 그린 소재를 사용한 콘트리의 따스하고 잔잔한 매력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컬러 하면 그린과 레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겨울 그린 소재로 트리를 만들고, 붉은 오너먼트나 리본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고민정 검사역과 장شم 조사역이 만들어볼 콘트리는 소재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유명한 더글러스 퍼로 골랐다.

“오랜만에 살아 있는 식물을 만져보네. 손으로 살짝 만지지만 해도 은은한 나무향이 나서 기분이 좋아요.”

숲속에서 금방 채취한 것처럼 싱싱한 더글러스 퍼를 만져도 봤다가 냄새도 맡았다가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는 고민정 검사역을 보며 장شم 조사역도 덩달아 미소를 머금는다. 가만 보니 고민정 검사역은 웃음이 참 많고, 웃음소리도 맑은 종소리를 닮았다. 이런 소녀 같은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두 사람의 TMI를 살짝 흘리며 본격적으로 콘트리 만들기에 돌입했다.

테이블 위에 두고 감상하기 좋은 사이즈의 콘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미니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화로 만들기 때문에 자연의 향기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고, 원하는 볼륨과 모양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 나만의 트리를 만들어낸다는 매력이 있다. 콘트리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사각 모양의 플로랄 폼을 원하는 형태로 깎고 다듬



는 작업이다. 플로랄 폼이 콘트리의 뼈대를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중한 디자인 구상이 필요한데, 장شم 조사역이 먼저 과감하게 깎아내기 시작하자 고민정 검사역도 망설임 없이 작업을 시작한다. “플로랄 폼 깎을 때 사각거리는 소리와 느낌이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연필 깎는 거랑 비슷한 것도 같은데?” “듣고 보니 그러네.” 주머니 받거니 의기투합이 잘되는 부부다 보니 처음 해 보는 일도 막힘없이 술술 풀어낸다. 그다음 과정은 잘 다듬은 플로랄 폼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더글러스 퍼를 잘 꽂아주는 일. 일종의 꽃꽂이를 하는 셈인데, 무턱대고 꽂기보다는 트리 형태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해야 하며 특히 생화를 다룬다 보니 섬세한 터치가 관건이다. 웨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부 역시 확연히 다른 방식, 다른 스타일이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진행되는 고민정 검사역의 작품은 콘트리의 정석을 보여주는 느낌이라면 장شم 조사역은 다소 거칠게 느껴질 만큼 과감하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도 표현 방식이 어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두 사람의 작품 성향이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성격 역시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끌렸던 것 같다 말하고 서로 바라보며 웃는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취향의 발견

요령이 생기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법. 난생처음 해 보





는 꽃꽂이라서 처음에는 지도강사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으니 부부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콘트리에 입히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트리 모양이 잡혀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새롭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형태가 잡혀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어서 잔뜩 집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오히려 놀랐다는 장샘 조사역. 창작에 진심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도강사는 상당히 재능이 있어 보인다고 원하는 대로

더 자유롭게 표현해 보라고 권유한다. 이 와중에도 본인의 페이스대로 조금은 느리지만, 꼼꼼하게 자신의 창작품에 한껏 집중하고 있는 고민정 검사역. 자신의 콘트리에 집중하며 간간이 남편의 작품을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오빠 콘트리는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날것의 느낌도 있는 것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마치 밀림을 연상하게 한다고 할까?” 밀림을 연상하게 한다는 고민정 검사역의 말에 잠시 고민하던 장샘 조사역은 울창한 느낌을 더욱 살리기 위해 화려한 삼나무로 화룡점정의 묘를 살렸고, ‘정글벨’이라는 애칭을 붙이기로 했다. “그냥 좋은 경험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꽃히는 대로 만들고 있었는데 다들 소질 있다고 하시니 정말 그런가 싶네요. 의외의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칭찬 들으니 더 잘해내고 싶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고 그러네요.” 장샘 조사역은 오늘 덕분에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한 기분이라며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종목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웃는다.



MINI INTERVIEW

고민정 조사역

올 해 좋은 일도 많았고 또 바쁘기도 했는데 연말에 남편이랑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크리스마스여서 좋은 와인바를 예약해뒀는데, 거기서 1차로 맛있게 먹고 2차로 집에서 감바스랑 파스타 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모두들 올해보다 내년엔 더 행복한 일들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장샘 조사역

올해 너무 바쁘다 보니 아내와 이런 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오늘 덕분에 콘트리를 만들며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덕분에 기쁜 연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구성원 모두가 가족들과 같이 따뜻한 시간 보내면서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부부의 첫 크리스마스

부부가 콘트리를 만들기 시작한 지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걷는 것이 장샘 조사역의 속도라면, 잔걸음이지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고민정 검사역의 속도다. 얼추 트리 모양을 갖춘 두 사람의 콘트리를 굳이 비교하자면, 장샘 조사역은 무질서 속의 자유로움이 매력적이고, 고민정 검사역은 기초부터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정형미가 돋보인다. 촘촘하게 메워 작은 더글러스 퍼 동산을 연상케 하는 러블리한 작품을 탄생시킨 고민정 검사역은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배구공을 떠올리며 ‘월손’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로 했다.

이제 최종 단계는 ‘정글벨’과 ‘월손’을 꾸며주는 일. 이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요하는 일이라 한참 동안 콘트리를 들여다보던 두 사람, 다시 작품 세계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오빠 콘트리는 크고 화려한 장식이 어울릴 것 같고, 나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어울릴 것 같아. 귀여운 이미지가 어울리려나?” “동글동글 예쁜 모양이어서 뭘 붙여도 다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부부는 문득 자신들이 생각해도 콘트리에 너무 몰입한 것 같았는지 큰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뭔가를 만드는 일에 오롯이 집중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 다 특별한 취미가 없었는데 앞으로 뭔가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빠가 만든 콘트리는 거실에 두고, 제거는 침실에 둘까 해요. 관리만 잘하면 한 달 이상은 간다고 하니 매일 감상하면서 오늘의 추억을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멋진 콘트리를 완성한 것에 크게 만족한다는 고민정, 장샘 부부. 오늘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 이들 부부의 내년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향기로 나를 알아가다, 향기로 나를 표현하다

구고선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역

이광태
보험감독국 조사역

이원철
보험감독국 조사역

윤시윤
감독총괄국 조사역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향이 더해지면, 그 사람만의 개성이 된다. 평소 향수에 그리 관심이 없었더라도, 나만을 위한 향수를 손수 만들어볼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2023년 동기 네 사람이 상상으로만 그렸던 '나만의 향기'를 찾아 나섰다.

글: 정라희 사진: 한상훈



당신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나요

겨울 치고는 날씨가 제법 포근하다. 연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즈음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가끔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 같은 시간이 있다. 2023년에 나란히 입사한 이광태 조사역과 이원철 조사역, 윤시윤 조사역 그리고 구고선 검사역에게 이날의 향수 만들기 체험이 꼭 그런 깜짝 선물이었다.

보험감독국에서 함께 근무하는 이광태 조사역과 이원철 조사역은 평소에도 단짝처럼 자주 만나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윤시윤 조사역과 구고선 검사역과는 이번 기회에 체험을 함께하게 된 까닭이다.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 해서일까. 서로를 바라보는 네 사람의 눈빛이 마치 초승달 같은 웃음으로 변했다.

이날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된 곳은 서울 상수역 근처에 있는 향수 공방. 다양한 향료로 가득한 테이블이 한눈에 들어온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고 하얀 실험복을 걸쳐본다. 겉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이미 조향사가 다 된 기분이다.

익히 아는 사이여서일까. 어색한 기운도 없이 네 사람은 도란도란 안부를 묻고, 가벼운 대화를 이어간다. '향수 만들기'라는 특별한 공통 소재가 생겼으니 새삼 궁금한 것도 많아졌다. 평소에 어떤 향수를 쓰는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나만의 향기를 찾아서

이날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는 '시그니처 향수 만들기'로 시작되었다. 막연하게 '이런 향기가 좋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정말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는 없었다. 느낌을 현실로 만들려면 몇 개의 징검다리

를 건너야 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향수를 만들기에 앞서 각자만의 향수 콘셉트 잡기에 나선다.

네 사람 앞에 놓인 상담 차트에는 좋아하는 향수는 물론 각자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만들고 싶은 향수의 콘셉트 등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항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광태 조사역은 평소 우디 향을 좋아하지만, 이번에 만들 향수에는 조금은 다른 개성을 더해보고 싶은 생각이 스친다. 이원철 조사역은 머스크 향을 선호하는 편이다. 요즘 같은 겨울에 은은하게 풍기는 머스크 향의 매력이 그는 참 좋다. 윤시윤 조사역의 '최애' 향수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샤넬 No.5라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맑고 깨끗하면서도 꽃향기가 번지는 특별한 향수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전한다. 향수보다 로션에서 은은하게 번지는 향을 선호하는 구고선 검사역은 코튼 향이 나는 따뜻한 기운의 향수를 만들어보려 한다.

우리의 추억 키워드 '향기'를 더하다

향수 콘셉트를 잡은 후에는 실제로 향수를 만들어볼 차례다. 향수의 향기는 크게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로 이루어진다. 향수를 뿌렸을 때 바



로 말할 수 있는 향이 탑노트라면, 미들노트는 탑노트가 사라지고 드러나는 메인 향이다. 라스트노트는 탑노트와 미들노트가 사라지고 남은 잔향을 일컫는다.

전자저울에 비커를 놓고 스포이트를 이용해 영점을 조절해 가면서 꼼꼼하게 향료를 배합하는 네 사람. 하나의 메인 향에 다양한 향료가 더해지면서 각자만의 개성 있는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때 조합하는 향료는 각 노트에 최소 서너 개. 이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한 콘셉트처럼 여겨져도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향수 콘셉트를 잡고 심사숙고하며 향료를 배합하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꽤 시간이 걸린다. 최종 완성작을 만들기까지 결정의 순간은 더 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찾아가며 '오직 나만을 위한 향수'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네 사람. 정성스레 조합한 향수를 공병에 담아 라벨까지 붙이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가 탄생했다. 난생처음으로 직접 만든 향수의 첫 느낌은 그야말로 '설렘'이다. 매일 뿌리며 친구처럼 지내는 향수는 어떤 향취로 각자에게 남을까? 오늘 덕분에 동기 네 사람의 추억 속에 '향기'라는 공통점이 하나 생겼다.



MINI INTERVIEW



윤시윤 조사역

겨울이라서 우아한 플로럴 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향수를 만들어본 건 처음인데 저만의 향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구고선 검사역

향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클래스를 통해 향수의 특성이나 제조 과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향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광태 조사역

향수를 주제로 동기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평소 말아보지 못한 다양한 향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원철 조사역

그동안 마음에는 들었지만 미처 도전해 보지 못했던 향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향수를 만들어봤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FSS news

10/30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 한국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10/31

금융감독원,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 및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개최

금융감독원은 10월 31일 해양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 홍보 및 부산

지역경제와 해양금융 산업의 연계발전 도모를 위한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의 첫 행사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 및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의 발전전략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올해 '대전환의 시대, 해양금융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해양금융 최신 동향을 살피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의 성장전략을 논의했으며, 해양·금융산업 내 디지털 환경과 친환경 기조 변화를 반영해 부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11/20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1월 20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신한·우리·농협·광주은행은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했던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 전 은행권에 공유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1/23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Kick-off) 개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11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11월 16일 민당정협회의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11/30

'제18회 금융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은 11월 30일 본원에서 '제18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공모전은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최하고 있으며, '제18회 금융공모전'은 역대 최대인 총 3,179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금감원장상 26명, 교육부장관상 4명, 교육감상 36명, 금융협회장상 99명 등 총 16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전 수상작을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공개할 예정이다.



12/4

금융감독원, 세종특별자치시, 한화손해보험 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은 12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한화손해보험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사기 예방과 함께 금융회사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명의식을 지니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변하지 않은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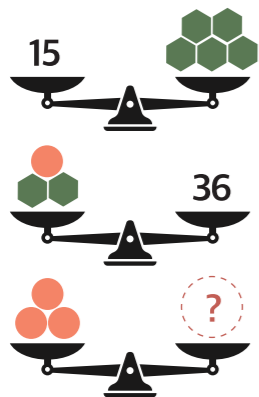
2024년 1월 20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호 문제

Q1

물음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 A
26
- B
78
- C
90
- D
99

Q2

질문을 읽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는 무면허·뺑소니, 음주·마약 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운전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힌트 32페이지)



퀴즈 정답 제출 및 모바일 독자의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하세요.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 Q1. 223
- Q2. 6

퀴즈 당첨자

- 김*경 010-****-8033 김*현 010-****-1674
- 김*화 010-****-1602 유*열 010-****-1662
- 이*억 010-****-3332 여*아 010-****-0286



- 이번호 이벤트 마감 : 2024년 1월 20일까지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선물 발송 : 12월 31일까지
- 문화상품권 1만 원 10명



구독신청 하기
QR코드를 스캔하면 <금감원 이야기>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독촉(채권추심)은 값을 책임이 없어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레니 조금이라도 값주세요.”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추심회사가 이런 제안을 한다면, 단호하게 값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값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빚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서 보관하세요.



채권추심 관련 카드뉴스를 QR코드를 스캔해서 확인하세요.



변액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에요.
변액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보험 성향이나
투자 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가입한 후에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 펀드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